



성도GL 후원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최대 악기 편성 · 높은 호응속 음악 열기 최고조”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이 후원한 제13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5월 31일 파주 헤이리 갈대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케스트라 단원은 총 65명으로 2006년 헤이리 오케스트라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악기가 편성됐으며, 널리 알려지고 익숙한 곡을 주로 연주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재미있는 해설 장일범·차세대 젊은 지휘자 서진

이번 연주회는 해박한 지식과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중 한 명인 장일범 씨가 진행을 맡았다. 장일범 씨는 KBS 클래식 '장일범의 가정음악' DJ로 활약하고 있으며 마리아 칼라스홀 메트로페라 HD 해설을 맡는 등 공연 해설을 통한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연주에 앞서 곡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차세대를 이끌 유능한 젊은 지휘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진 씨가 맡았다. 서진 씨는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정열,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으로 작곡가의 사상과 심성의 다양함을 전달하는 자유로운 메신

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독일에서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 한국 젊은 연주자들의 우수한 음악성과 진지한 음악적 해석, 풍부한 음악적 색채감을 수준높게 조율함으로써 독일 음악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2회 동안 헤이리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온 서현식 지휘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경기병 서곡으로 힘찬 서막

제13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는 주제의 '경기병 서곡(Overture to Die Leichte Kavallerie)'으로 막을 올렸다. 경기병 서곡은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한 곡 중의 하나다. 경기병이란 중무장하지 않은 말을 탄 가벼운 무장의 기동성을 살린 병사를 뜻하는데, 제목답게 곡 분위기도 빠르고 경쾌한 것

이 특징이다. 군대의 나팔처럼 드높이 울리는 트럼펫과 호른으로 서막을 알리고 그 뒤를 이어 트롬본과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관현악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뤘다.

‘경기병 서곡’에 이어 5월의 꽃 장미처럼 새빨간 장밋빛 드레스를 입은 소프라노 정혜옥 씨가 임궁수 작곡의 ‘강 건너 봄이 오듯’,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Ginni schicchi)’에 나오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 Mio Babbino Caro)’를 불러 따뜻한 감성을 전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아 중 하나인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극중 라우레타가 아버지 잔니 스키키에게 리누치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만약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겠다고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테너 이재욱은 김동진의 ‘목련화’,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Das Land Des Lachelns)’의 대표 아리아인 ‘그대는 나의 모든 것(Dein ist mein ganzes Herz)’을 불렀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은 오스트리아 백작의 딸인 ‘리자’가 중국대사 ‘수총’을 사랑해 함께 중국에 가게 되는데, ‘수총’의 백부가 중국의 관습에 따라 ‘리자’ 외에 4명의 신부와 동시에 결혼해야 한다고 하자 ‘리자’는 크게 화가 나고, ‘수총’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다.

초여름 밤의 향연 “아름다운 밤입니다~”

소프라노 정혜옥과 테너 이재욱의 열창이 끝난 후에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이어졌다.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 중 ‘님로드(Nimrod)’, 영화 ‘The mission’의 OST인 엔니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Gabriels oboe)’,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OST인 만시니의 ‘문리버(Moon River)’가 초여름밤의 음악열기를 고조시켰다.

해설가 장일범은 “파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진행되면서 어느덧 해는 지고, 저녁 노을이 헤이리 갈대광장

을 붉게 물들고 있다. 아름다운 5월의 밤이 시작되고 있다”고 갈대광장의 서정을 표현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어 무대에 오른 바이올린 강나경 양은 사라사테가 작곡한 집시의 멜로디라는 뜻의 ‘지고이네르 바이젠(ziegeunerweisen)’을 연주해 청중들의 탄성과 큰 박수를 받았다. 강나경 양은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열린 유로 아시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한 음악영재로 바로크콩쿠르 1위, 소년한국일보 금상, 광명예능콩쿠르 현악부문 전체 1위, 음악교육신문사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계남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다.

또한 소프라노 정혜옥이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이제 가지 말아요! (Ah! ne fuis pas encore!)’, 테너 이재욱이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소프라노 정혜옥과 테너 이재욱이 함께 사르토리외의 ‘안녕이라 말할 시간이예요(Time To Say Good Bye)’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제13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는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작’ 중 ‘달단인의 춤(Polowezkischer Tanz)’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했으며,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된 정기 연주가 끝나자 300여명이 넘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긴 박수로 앙코르를 청하기도 했다.

한편, (주)성도GL/(주)성도솔루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업 예술지원 프로그램인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김상래 대표이사는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통해 예술을 통한 행복 나눔에 공헌하는 것이 큰 보람”이라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



1. 성도GL 후원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전경



2. 열창하고 있는 테너 이재욱



3. 열창하고 있는 소프라노 정혜옥

4.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강나경양